

포용사회의 인식적 타자들: 외부인에 대한 환동해지역 미디어의 내러티브 고찰*

김 석 희**

■ 목 차 ■

I. 서론: 포용이 만들어내는 타자성에 대하여	III. 포용사회의 타자들, 그리고 미디어 내러티브
II. 환동해지역과 한국미디어: 외부인 포용의 구조	1. 동화처럼 '그 후로도 행복한' 서사
	2. 꼬리를 자르는 서사
	3. 한국사회의 인식적 우위향
	IV. 결론을 대신하여: 사회적 팔세도와 파사지오

[초록]

환동해지역(한,중,일)의 미디어에서 외부인(또는 외국인)을 출연자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공통적으로 서양인들을 주된 출연자로 하며 그들의 시선에 의해 새롭게 조명되는 자국의 모습을 확인하거나 그들이 자국의 문화 를 익히고 이해하는 모습을 통해 세계성을 획득한 자기 사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한국 역시 큰 흐름에서는 비슷하다. 다만, 한국의 경우, 사회적 마이너리티인 동남아 출신 결혼 이주 여성이나 탈북 정착민들이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프로그램, 즉 <다문화 고부열전> 과 <이제 만나러 갑니다>가 방영되고 있다. 이것은 환동해지역의 다른 국가와 차별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또 한편, 한국사회의 포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 이들 프로그램은 결혼이주 여성이나 탈북 정착민들을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타자화한다. 최근의 환동해지역 사회는 모두 포용이나 공존을 정책슬로건으로 걸고 있지만, 인식적으로 타자를 만들어내는 이상 진정한 포용이나 공존은 이루어질 수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62-H00001)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HK연구교수. kim-seokhee@khu.ac.kr

없다.

주제어: 포용, 인식적 타자, 미디어, 결혼이주 여성, 탈북정착민, 환동해지역

I. 서론 : 포용이 만들어내는 타자성에 대하여

‘포용’이나 ‘공존’이라는 가치는 범세계적인 것이며, 최근 환동해지역 국가¹들도 이를 정책기조의 전면에 세웠다. 중국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대내적 결속과 대외적 환경에 대한 반작용에서 세계화와 블록화에 적극 호응하는 방향으로 외국인 정책 및 문화정책을 전환하고 있으며(이태형, 2016, 96쪽), ‘12.5 계획’의 핵심기조를 포용적 성장으로 삼은 이후 ‘양적 성장’에서 ‘균형발전’으로 전환하는 등 이데올로기적 전환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김평수, 2012, 85-98쪽). 한국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단일민족 국가관이 지배적이었던 일본(아이누 민족이나 류큐 민족, 자이니치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역시 2005년을 전후하여 ‘다문화공생정책’을 검토해 왔으며(정미애, 2010, 299-328쪽), 노동력의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기는 하지만 정책적으로 외국인의 정주를 받아들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사회에서도 포용이라는 단어는 개인적 인간관계나 덕의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정책적 용어로 대두되었다.² 이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

1. 환동해지역이란 넓은 의미에서 한·중·일·러를 포함하며, 좁은 의미에서는 한국의 동해안, 중국의 동북삼성, 일본의 서해안,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개념이다. 본고는 넓은 의미의 환동해지역을 시야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최근의 외부인 수용이라는 주제의 특징상,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하며, 그 중에서도 한국의 미디어분석에 중점을 두었음을 밝혀 둔다.

2.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1월 18일, APEC 정상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우리 정부는 그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채택했습니다. 한국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은 포용적 성장, 포용적 사회,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입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며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국민 단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입니다. 이러한 포용성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APEC 회원국 간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기회와 호혜적 협력을 보장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http://korea.kr/archive/speechView.do?newsId=132030823>(2019.04.07. 문재인 대통령, APEC 정상회의 발언문)

물려 있다. UN이 제시한 17가지 사회적 가치에 포함되기도 한 포용은 그 의미 자체가 ‘포용’적이어서 명확하지 않다. 대략 사회적 약자를 끌어안아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게 한다는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으나, 저마다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포용(包容)을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으로 정의하고 ‘감쌈’ ‘덮어줌’이라는 말과 바꾸어 쓸 수 있다고 제시한다. 그러나 이 ‘너그럽게 감싸고’ ‘덮어 주’는 가치는 흔히 죄 지은 자에 대한 무조건적 면죄나 은폐의 의미로 쓰일 뿐 아니라, 정작 약자의 포용이라는 측면에서는 현실적 가치로서 작용하지 못하는 등 많은 모순을 상기시키는 개념이기도 하다.

한편, ‘포용(包容)’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한계, 즉 받아들이는 쪽의 용량이 크게 설정된다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포용하는 자와 포용되는 자의 관계는 영원히 동등해지기 어렵다. 포용하는 자, 혹은 포용하는 집단은 ‘너그러움’을 베풀기 때문에 포용되는 자는 그에 대해 언제까지나 ‘감사’의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정서가 깔려 있다. 그러므로 포용은 ‘받아들임’과는 다른 정서를 동반한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도 누군가를 ‘받아들임’은 그와 나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포용’은 어느 한 쪽이 그릇이 되어 어느 한쪽을 담는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포용된 자는 언제까지나 포용하는 공동체에 담기는 대상이므로 끊임없이 그 공동체에 동화되기를 요구받거나 동화되고자 한다. 이즈음에서 포용된 자는 타자로 자리매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포용’이라는 가치에 대해서는 태생적으로 타자성을 안고 있다는 한계를 직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의해야 한다.

또한 당연하게도 포용사회라는 개념은 한국 국내에 국한되는 논의일 수 없다. 한국 사회가 ‘포용’해야 할 대상들은 국가사회의 ‘내부’에만 있지 않고, 결혼이주, 취업이주, 난민이주 등 국가사회의 ‘외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2019년 현재, 환동해지역, 특히 한국 내 이주민들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의 메스미디어가 만들어내는 포용의 정동구조와 타자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I. 환동해지역과 한국 미디어: 외부인 포용의 구조

스튜어트 홀은, 주류 미디어가 ‘선택’, 혹은 ‘표준화’한 인종관계를 다루는 양식에 대하여 다수에 대한 소수가 주변인, 또는 열등한 것으로 재현된다고 했다.(Hall, 1972, 3쪽) 소수자들이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고 다수에 동화될 것이 요구되는 존재로 인식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소수자를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방식도 일괄적인 것은 아니다. 탈북정착민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여성을 바라보는 시각과 서양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차이가 있다. 최근 몇 년 간, 한국사회의 국제화를 말해주듯 여러 방송사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등장하는 연예 프로그램이 편성되었는데, 외부인을 포용하는 시선에도 차이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국과 일본에서도 외국인이 출연하는 예능프로그램이 제작되어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들 프로그램의 공통점은 서구인들이 주된 출연자라는 점이다. 중국 프로그램 <외국인재중국外国人在中国>(2013-현재, CCTV-4)은 중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혹은 그 자녀들이 출연하는데, 출연자들은 대부분 서양인이고 중국의 음악, 무용, 무예 등 전통문화를 배우거나 익힌다는 특징이 있다.³ 그 밖에도 외국인으로 하여금 중국 문

[그림 1] 외국인재중국外国人在中国(2013-현재, CCTV-4)



3. <http://tv.cctv.com/2018/03/25/VIDEEC5Eth4DYOmQBhNWUmKn180325.shtml> (검색일자 2019.04.30. 外国人在中国 홈페이지)

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중국문화를 알리는 <헬로 중국 Hello 中国>, 한국의 jtbc <비정상회담>을 모방한 토크 프로그램 <세계 청년이 말하다 世界青年说> 등도 모두 비슷한 기획취지를 가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비교적 여러 개 있는데, 현재 방영 중인 프로그램으로는 <You는 무엇 하러 일본에 그ーは何しに日本へ>(2013-현재, テレビ東京), <COOL JAPAN~발굴! 멋진 일본~ COOL JAPAN~発掘! かつこいいニッポン~>(2006-현재, NHK), <세계! 일본에 가고 싶은 사람 응원단 世界! 日本へ行きたい人応援団>(2016-현재, テレビ東京) 등이 있다. 이들 프로그램의 특징은, 역시 서양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들이 출연하여 일본의 아름다운 풍경이나 음식, 평소에 생각지 못했던 일본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는 컨셉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 이주여성의 한국 시집살이 적응기를 소재로 하는 <다문화 고부열전>(2013-현재, EBS), 탈북인들이 출연해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생활상, 대한민국 적응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2011-현재, 채널A) 등은 오히려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인이 출연한 프로그램은 과거에도 <러브 인 아시아>(2005-2015, KBS) 등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본고에서는 현재 방송 중인 프로그램들 중심으로 논하고자 하며 데이터의 분석보다는 인식과 담론의 문제로 접근하고자 한다.

<다문화 고부열전>은 주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여성과 러시아 여성 등, 결혼으로 인한 이주여성,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새터민’들이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는가를 보여준다. 굳이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 ‘적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이들 이주민 출연자 대부분이 한국사회에서 두드러지지 않고 한국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요구받거나 지향하기 때문이다.

특히, 외모나 언어에 차이가 있을 경우, 포용된 자의 정체성은 공동체 안에서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그 두드러짐으로 인해 겪는 불안과 단절감을 은폐한 채, 빠르게 갈등을 봉합하면서 그들은 모두 ‘행복하게 살았다’로 끝난다. 이들 프로그램의 구성방식은 한국 사회의 포용이 초래하는 타자화를 은폐하면서, 행복한 주체가 아니라 행복한 객체를 양산하도록 정동(affect)된다. 그러나 앞의 두 프로그램은 주로 서양인들이 출연하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2017년-현재, MBC)나 <대한 외국인>(2018-현재)

등과 시선의 차이가 있다. 후자 역시 소수자인 그들을 다수자인 ‘우리’에 동화시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그들의 인정이 ‘우리’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환동해지역 여타국가의 외국인 출연 프로그램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은 2018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한 바와 같이 ‘포용적 성장, 포용적 사회, 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라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며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국민 단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이다. ‘배제하지 않는 포용’, ‘차별받지 않는 포용’은 평등을 지향한다. 이것은 정책적으로는 당연히 지향해야 할 방향성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정책적으로 ‘배제하지 않는 포용’을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 단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은, 국민이라는 이름 안에 포섭되지 않는 존재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설령 그 존재들을 국민의 범주 안에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현실 속의 배제까지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정책이 공동체 내부의 인식까지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말하는 ‘인식적 타자’란 정책의 범주를 넘어 사회전반의 인식 속에서 배제되는 존재들을 지칭한다.


III. 포용사회의 타자들, 그리고 미디어 내러티브

1. 동화처럼 ‘그 후로도 행복’한 서사

<다문화 고부열전>의 기획 의도는 다문화 가정의 신청을 받아 고부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다. 그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오직 결혼만을 위해 낯선 땅을 찾은 그녀들’을 시어머니는 왜 못마땅해 하는지 알아보고, 고부가 함께 며느리의 나라를 여행하면서 서로를 이해한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이다. 제작팀은 이것은 ‘역지사지 힐링 여행’이라고 부른다.

<다문화 고부열전> 1회부터 53회까지 중, 20개 분량의 에피소드를 집중분석한 장선주·최성보는 ‘끊임없이 강요되는 동화주의’를 지적한다.(정선주 외, 2015, 97~122쪽) ‘엄마’

[그림 2] 다문화 고부열전(2013-현재,EBS)



· 방송일시 : [11V] 목요일 밤 10시 45분(본) 토요일 오후 5시 40분(재) 월요일 저녁 7시 55분(신주세방)

· 기획의도 : 가족이란 이름으로 한 가정 안에 있는 두 여인, 고부(母婦) 고부간의 갈등은 어디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다문화 가정'의 고부 갈등은 어느 가정과 다른 면이 있다.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가치, 서로 다른 문화라는 큰 벽이 존재한다. 한 가정이라는 전통의 안에서 새로운 윤리를 채워보 인당까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여인들, 고부(母婦)

«한국으로 시집 온 다문화 여성 이야기»
오직 결혼만을 위해 낯선 한국 땅을 찾은 그녀들. 그러나 말도 없고, 음식도 없고, 사람도 없는 한국에서의 삶은 녹록치 않다. 최선을 다한다는 그녀들.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체 왜 나를 못마땅해 하는 걸까.

«다문화 여성을 매느리라고 말이란 시어머니의 이야기»
매느리를 맞이했으나 한사코 버리고 생각했다. 상황이 말리고, 손자도 귀우고 말뼉말을 잘 지내보려했다. 그런데, 불행부터 영수. 남편(남주희)이, 마음에 두는 구석이 없다. 매느리가 아무런 다른 노력에서 왔다지만, 어떻게 다른 수가 있을까...

함께 있으면 이해하고 존중하는 두 사람,
고부기 함께 매느리의 단장 나리은 역할을 떠난다.
남편도 막아도 없이 오직 두 사람만이 알고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갈등의 공을 채워가는 시간.
시어머니와 매느리인 '명지사자' 열일 여행이 시작됐다!

라고 부르면서(혹은 부르게 하면서) 가족 공동체 속에 그들을 포섭하고 한국식(유교적) 전통을 강요한다. 여기서 ‘엄마’라는 호칭이 원래 어린아이들의 언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 호칭 속에는 며느리들을 어린이와 동일시하는 정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아이의 자리에 놓임으로써 스스로 발화하거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존재로 자리매김 된다. 한편, 이 프로그램의 등장인물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집중되어 있어, 사실상 그 며느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국 사람일 남편의 존재조차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구도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결혼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오게 된 경위를 은폐하면서 이 문제를 고부갈등 수준의 개인적 영역으로 돌려버린다.

이따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향해 올바른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시어머니의 잔소리에 주눅 들어 생활하는 며느리가 등장한다.⁴ 예를 들어, 2019년 3월 7일자 다문화 고부열전의 주인공은 필리핀인 라이니로즈 고메라(43세)씨가 출연

한 쪽지는 제목조차 ‘목소리 큰 시어머니, 주눅 든 며느리’였다.

고메라씨는 제작진과의 대화에서 ‘엄마 목소리가 커요. 그냥 목소리 작게 내주시면 안 돼요?’라고 말한다. 고메라씨가 외출했다가 늦게 돌아온 날, 시어머니는 다리가 불편하다면서도 직접 연탄불을 갈러 나간다. 며느리가 늦게 돌아온 것이 언짢아 그런 것이냐, 아니면 못미더워 그러느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안스럽잖아요. 그거 뭐 불까지.’라는 의외의 대답을 한다. 목소리 큰 시어머니의 속마음은 따뜻한 것이었다는 의미다. 이들 고부는 고메라의 고향 필리핀으로 여행을 떠난다. 며느리의 일가친척이 모두 와서 시어머니를 환영한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는 ‘오랜 친구처럼’ 다정하다. 고메라씨는 ‘시어머니가 친정식구들과 가까워지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며 행복해 한다. 필리핀에서 고메라씨와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다니는 장면을 연출한다. 몇찍어 하는 시어머니도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 그리고 마지막엔 시어머니가 그동안 서운하게 했던 것들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며느리는 ‘괜찮아요. 나 (엄마 마음) 알아요.’라고 받아들이며 화해한다. 그리고 나레이터는 ‘두 분, 앞으로 더 행복하세요.’라는 멘트로 끝을 맺는다.

이것은 고메즈씨의 경우뿐 아니라 <다문화 고부열전>의 패턴이다. 며느리의 나라

4. <http://home.ebs.co.kr/gobu/replay/4/list?courseId=10005883&stepId=10006979>(검색일자 2019.04.07. 고부열전 홈페이지) 2019년 1월부터 4월 7일 현재까지 14편이 방송되었는데, 이 중 7편은 주눅 든 며느리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이가 나쁘지 않아 보이는 고부간이라 할지라도 며느리의 한국생활이 고된 시집살이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방영일자	제목
2019.04.04	투정부리면서 다 하는 며느리, 싫은 소리 못하는 시어머니
2019.03.28	자기 기준을 고집하는 시어머니, 포기한 며느리
2019.03.21	집 사주고도 미안한 시어머니, 열일 하면서도 섭섭한 며느리
2019.03.14	‘네’하는 며느리, 진짜 마음을 모르는 시어머니
2019.03.07	목소리 큰 시어머니, 주눅 든 며느리
2019.02.28	다그치는 시어머니, 눈치보는 며느리
2019.02.21	톡 쏘는 며느리, 눈길을 안 주는 시어머니
2019.02.14	늘 곁에 있는 며느리에게 미안한 시어머니
2019.02.07	간간한 시어머니, 눈에 들고 싶은 며느리
2019.01.31	무뚝뚝한 시어머니 가까워지고 싶은 며느리
2019.01.24	엄마가 된 시어머니, 자신감 없는 며느리
2019.01.17	서로 말걸기를 어려워하는 고부
2019.01.10	어머니, 함께 살아줘서 고마워요
2019.01.03	자식이 뭐기에, 어머니 이젠 쉬세요

를 여행한 후 시어머니가 온화한 모습으로 누그러지고 며느리와 행복하게 웃는 모습으로 끝나는 이 패턴은 ‘왕자와 공주는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끝나는 동화화도 같다. 과연 이 프로그램이 끝난 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좋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복이 주체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제작진이 정해주는 패턴대로 만들어지는 일률적인 행복은 그들 사이에 놓인 갈등을 외면할 뿐 아니라 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한국에 시집오게 되었는가 하는 갈등의 기원을 은폐한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의 행복이 어른들의 목소리에 의해 결정되는(혹은 결정된다고 믿는) 상황을 상기시킨다. 그리하여 한국 사회가 그들을 포용하는 듯 연출하지만 동시에 그들을 대상화함으로써 타자화하는 과정을 감출 수도 없다.

2. 도마뱀처럼 꼬리를 자르는 서사

탈북정착민들이 출연하는 연예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7명의 탈북여성들(주로 함경도와 양강도 출신 여성들)이 고정출연하고 매회 탈북정착민들이 출연하여 북한과 남한의 다른 점을 이야기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얼마나 낙후되고 이상한 사회인가를 토로한다. 출연자들의 대부분은 한국에 정착하여 큰돈을 벌었거나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람들이며, 출연자의 대부분은 서울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을 정도의 서울말을 구사한다.

예를 들어, 381회 출연자는 현재 고려대학교 재학 중인 김일성대학 외문학부 출신의 청년으로, 중국에서 한국인 유학생과 닭갈비집에 갔다가 처음으로 ‘민주주의, 인권, 보편적 인류애’ 같은 단어, 북한정권과 북한의 현실, 탈북자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으며 유창한 서울말을 구사할 뿐 아니라 ‘닭갈비는 사랑이죠’와 같은 최근의 한국식 농담까지 체화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 엘리트 청년을 둘러싸고 고정출연자인 탈북미녀들은 그가 얼마나 엘리트인가에 대하여 공감 표하여 추켜세운다. 역시 381회 출연자는 북한식 떡집을 내어 크게 성공한 여성이며, 북한에 있을 때 동생이 굶어죽은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이 출연자 역시 서울 말씨를 쓴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매회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했으며 서울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로 선정된다.⁵

이들이 연출하는 성공담은 한국사회가 북한주민을 ‘포용’하는 방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만적이다. 첫째, 자본주의 사회의 성공신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사실상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탈북정착민의 존재를 덮어버리며, 둘째, 그들에게 불편한 것이 당연했을 서울말이 그들의 내면에 있는 북한말을 덮어버렸고 그 사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사회진출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그 직업유형은 주로 제조업(23.7%), 단순노무(22.5%), 서비스업(18.1%), 기능원 및 관련종사자(10.6%) 등 저소득 직업군이나 비정규직에 고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8년 현재

[그림 3] <이제 만나러 갑니다> 홈페이지의 기획의도



5. http://www.ichannela.com/program/template/program_articleList.do?cateCode=0500&subCateCode=050006&type=02&menuIndex=3&seqIndex=0&searchDate=&realCateCode=05000604&pgrm_id=WPG2110157D (검색일자 2019.04.07. <이제 만나러 갑니다> 다시보기)

탈북정착민은 32,476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탈북 동기는 북한체제의 감시와 통제(25.3%), 식량 부족(22.5%)이 반수를 차지한다. 이들 중 본인 소유의 집을 가진 사람은 12.8%에 불과하다. 이 보고서 내용은 전반적으로는 북한에서 살 때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판단해도 좋을만한 지표다.

하지만, 남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조사에서는 중간층이 52.0%, 하층이 45.9%, 상층이 2.1%였던 데 비해, 같은 조사 내에서 북한에서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대답은 중간층 56.9%, 하층 36.3%, 상층 6.7%로 나타났다. 남한생활의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이 72.5%였고 만족하는 이유로는 ‘자유’와 ‘일하는 만큼 벌 수 있어서’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만족도 조사에서 ‘보통이다’를 포함하여 불만족이 27.5%에 달했는데 불만족의 주된 이유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18.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편견 때문에(18.3%)였다. 월평균소득은 189.9만원으로 일반국민 255.8만원의 75% 정도다. 탈북정착민들은 북한에서보다 절대적으로는 경제적 상황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탈북자들 4명 중 1명은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⁶ 이러한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보이는 탈북정착민들의 내러티브가 한국사회의 관점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바흐친은 언어반응이 개인의 내부가 아니라 사회적 상황 전체의 산물이라고 했다. (바흐친, 1979) 그런 의미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교육이 모어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탈북정착민들이 서울말을 유창하게 구사하게 된 과정 모두 엄연히 한국사회의 요청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크 데리다는 파울 첼란의 「쉬볼렛」을 논하며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자와 건너갈 수 없는 자, 그리고 그 가능성의 표지로서 언어가 작동하는 기제를 논하였다.(Jacques Derrida, 2005, 1~65쪽) 구약성경에 에브라임 사람들이라는 것을 숨기고 요르단 강을 건너려고 했을 때 그들을 색출해 내기 위해 사용한 암호가 ‘쉬볼렛’인데, 에브라임 사람

6. file:///C:/Users/samsung/Downloads/01+2018+%EB%B6%81%ED%95%9C%EC%9D%B4%ED%83%88%EC%A3%BC%EB%AF%BC+%EC%A0%95%EC%B0%A9%EC%8B%A4%ED%83%9C%EC%A1%B0%EC%82%AC-%EC%9B%B9%EC%9A%A9.pdf (2019.04.07. <2018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통계청 홈페이지에도 같은 보고서가 업로드 되어 있음.)

은 이 단어를 ‘시블렛’이라고 발음하기 때문이었다. 권명아는 강을 건널 수 있는 자는 ‘적절함의 표지’를 갖춘 자이며, 강을 건넌 자만이 언어를 소유할 수 있다고 했다.(권명아, 2019, 181~183쪽) 탈북민의 경우, 언어가 직접적으로 목숨을 위협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이미 언어적 차이에 의해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에 정착한 후에는 경계심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그 언어를 버려야 한다.

그들은 새로이 얻은 한국어라는 ‘적절함의 표지’를 가지고 자신의 모체이며 기원인 북한사회를 철저히 파헤쳐 비판한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자아비판처럼 보인다. 북한사회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비판이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듯 지금의 자신은 과거의 정체성을 끊어 냈음을 증명하는 용도로 소비된다는 것은 존재론적 슬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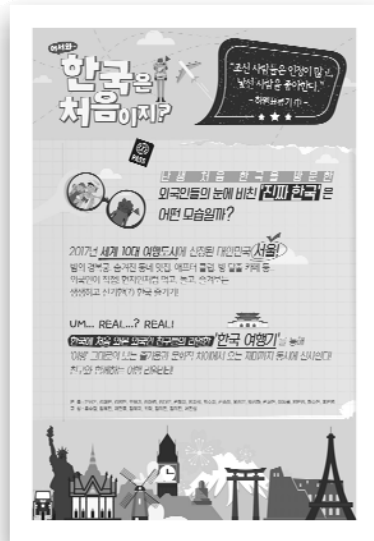
3. 한국사회의 인식적 우위향

앞에서 소수자가 미디어를 통해 재현되는 방식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는데,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또 다른 형태의 프로그램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2017년-현재, MBC)나 <대한 외국인>(2018-현재) 등은 <다문화 고부열전>이나 <이제 만나러갑니다>와는 분명히 다른 시선을 보여준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가 앞에서 언급한 <다문화 고부열전>과 다른 점은 우선 형식면에서 국내거주 서양인들이 등장하고, 그 서양인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점이다. 2017년 세계 10 여행도시에 선정된 서울을 주로 유럽인들이 방문하여, ‘외국인이 직접! 현지인처럼 먹고, 놀고, 즐겨보는 생생하고 신기한(?) 한국 즐기기’를 컨셉으로 한다.⁷

예를 들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의 첫 번째 출연자는 JTBC의 <비정상회담>으로 유명해진 이탈리아인 알베르토의 고향친구들이었다. 그들은 한국의 고궁과 밤거리, 유명식당을 돌며 ‘어메이징’하고 ‘뷰티풀’한 한국을 발견한다. 책상다리를 하고

7. <https://www.mbcplus.com/web/program/contentList.do?programInfoSeq=62&pageIndex=1&channelSeq=&state=Y> (2019.04.07.,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그림 4]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2017-현재, MBC)의 기획의도를 보여주는 홈페이지



앉아서 ‘암모니아를 넣어서 만든 음식 같은’ 흥어를 먹는다. 불편한 자세와 먹기 힘든 음식을 외국인들에게 먹게 하는 장면에는 방청자인 한국인들의 만족한 웃음이 상정되어 있다. 물론 그들에게는 외모도 언어도 절박한 ‘표지’가 되지는 않는다.

<대한 외국인>은 대상선정 기준에서 고부열전과 다소 비슷하지만 퀴즈대결 형식이라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프로그램들과는 차이가 있다. 한국거주 3년차부터 30년 차에 이르는, ‘한국보다 더 한국을 잘 아는 외국인’들이 등장한다. 최근 가장 인기 있었던 장면(2036개의 ‘좋아요’를 받음)은 ‘올해부터 변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의 날짜’였고, 이를 외국인 출연자가 거침없이 맞추는 장면이다.⁸

형식의 차이만큼 큰 차이는 여기에 상정되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입장이다. <다문화 고부열전>이 우위향으로서의 우리(시어머니 입장)가 열위향으로서의 그녀들(며느리 입장)을 찾아가 이해를 베푸는 입장에 섬으로써 ‘그녀들’을 대상화시킨다면, <어서와

8. <https://www.mbcplus.com/web/program/contentList.do?programInfoSeq=104&pageIndex=1&channelSeq=&state=Y> (2019.04.07., <대한외국인>)

한국은 처음이지>에서는 반대로 우위항인 서구인들이 찾아와 한국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형식을 가진다. 여기에는 한국사회의 인정욕구와 갈망이 포착된다. 한편, <대한 외국인>에서는 ‘우리보다 한국을 잘 아는 외국인들’을 통하여,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공부하는 시대’라는 우월감을 양산한다.

[표 1]은 앞에서 다룬 방송 프로그램의 성격을 출연자의 성별, 기획의도와 숨은 정서를 통해 우위항을 분석한 표이다. 이들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서구인들(우연히도 대부분 남성이다)도 인정한 한국사회가 동남아시아 출신 여성들과 탈북이주민(우연히도 ‘탈북’ ‘미녀’들이 등장한다)을 ‘포용’하는 형식으로 한국내 외국인(외부자)⁹에 대한 인식이 구조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 고부열전	이제 만나러 갑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대한 외국인
우위항	우위항으로서의 우리(시어머니의 나라)가 설정되어 열위항으로서의 ‘그녀들’에게 이해를 베푸는 입장.	탈북정착민을 ‘포용’하는 남한사회	우위항인 서구인들도 인정하는 한국(에 대한 갈망이 포착됨.)	‘우리보다 한국을 잘 아는 외국인’들을 통하여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공부하는 시대라는 우월감 양산
출연자 성별	동남아 출신 여성 탈북 여성이 고정 멤버		서구인들도 인정한 한국사회 출연자는 주로 남성	
기획의도	포용사회로 발전하는 한국의 발전		세계화되어가는(된) 한국의 발전	
숨은 정서	우월감·멸시·배타성, 한국인정체성의 부여		우월감·인정욕구 세계정체성의 획득	

9. 물론 여기서 탈북정착민을 외국인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외부자라는 취지로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

IV. 결론을 대신하여: 사회적 팔세토와 파사지오

환동해지역의 미디어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공유되고 때로는 모방된다. 외국인을 출연시키는 프로그램의 기획취지나 진행방식에도 공통점이 많다. 그러나 환동해지역 미디어에 출연하는 외국인은 대부분 서양인들이 주를 이루며, 그들이 자국의 문화에 얼마나 흥미를 보이는지에 역점을 둔다. 시청률을 통해 유지되는 미디어가 외국인 노동자 문제나, 마이너리티의 일상을 방송의 고정 테마로 다루기는 힘들다는 것이 현실이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한국 미디어가 결혼이주 여성이나 탈북정착민의 삶을 테마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은 먼저 높이 평가할만한 일이다. <다문화 고부 열전>이나 <이제 만나러 갑니다>와 같은 한국의 방송들은 환동해 여타지역에서 다루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을 주인공으로 한 프로그램을 방영한다는 점에서는 선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와 지역주의가 공존하는 글로벌리즘의 시대에 국가나 민족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나가는 것은 21세기 인류가 지향할 바이며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기도 하다. 환동해지역 역시 최근 1세기 동안, 격동의 시대를 거쳐 오면서 이제 ‘포용’과 ‘공존’을 정책으로 삼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포용과 공존은 정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정책적으로도 많은 수정이 요구되지만, 설령 정책적으로 차별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적 인식 속에서 타자화 되는 존재들, 즉 사회적 약자들은 결코 편안하게 ‘포용’될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이 새로이 속한 공동체의 성원으로서는 ‘적절한 표지’를 얻기 위하여 그 공동체의 목소리를 배우고 약속된 목소리로 노래하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다.

성악용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하자면, ‘팔세토(falsetto)’라는 말이 있다. 이탈리아어로 ‘가짜 소프라노’를 의미하고 한국어로는 가성(假聲)이라 번역한다. 외부인을 포용하는 몸짓으로 일관하는 한국의 미디어는 그들이 내는 가성, 팔세토만을 보여준다. 가성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진성과 가성을 적절히 조절하여 낼 줄 아는 가수가 훌륭한 가수다. 흉성으로부터 두성으로 변환되는 변곡점, 또는 그 전환과정 자체를 의미하는 ‘파사지오(passaggio)’는 그 자체로 이행의 의미를 지닌다. 음역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게 음 이탈이 일어나기도 한다.

외부인을 포용하는 몸짓으로 일관하는 한국의 미디어는 그들의 진성을 가성으로 이끌어가는 성공적인 파사지오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목소리, 즉 언어 정체성은 하나의 구조적 정동을 가진다. 사회적 타자, 혹은 약자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목소리를 배우고 약속된 목소리로 노래하고자 한다.

사라 아메드는 ‘긍정적 전환이, 나쁜 감정은 퇴행적이고 보수적이며 좋은 감정은 미래지향적이고 진보적이라고 전제하는 바로 그런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 사이의 구분에 사실상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염려스럽다고 했다. 나쁜 감정은 과거를 지향하는, 주체로 하여금 미래를 껴안지 못하게 ‘가로막는’ 일종의 완고함으로 인식되고 좋은 감정은 개방적이며 나쁜 감정은 폐쇄적이라는 전제야말로 부정의 역사적 형태들을 자라게 만든다고 주장한다.(사라 아메드, 2015, 94쪽)

그러나 그 내용이 담고 있는 우리의 인식에는 아직도 재고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 <다문화 고부열전>이나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타자로서의 그들이 발산하는 언어들은 발화자의 내면을 빠져나와 방황하는 팔세토이다. 행복과 희망의 공동체적 정서로부터 소외되는 존재들이 있음을 은폐한다. 진정한 포용은 그들로 하여금 가성을 내도록 종용하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진성을 부끄럼 없이 발화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있다. 한국사회(미디어)의 포용은, 진성을 막고 가성만을 강요하며 요구한 가성만을 포용한다. 진정한 포용을 위해서는 포용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우월적 지위 까지도 고민할 것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권명아,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갈무리, 2019, 181~183.
김평수, 「12.5규획으로 본 중국의 국가전략과 문화산업정책」, 『글로벌문화콘텐츠』,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2012, 85~98.
사라 아메드, 「행복한 대상」, 『정동이론The Affect Theory』, 2015. 갈무리, 94.
이태형, 「중국 문화정책의 통시적 고찰」, 『문화교류연구』,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16, 96.
정미애, 「일본의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 공생 정책의 간극」, 『의정논총』, 2010, 299~328.
정선주·최성보, 「TV 프로그램에 재현되는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특성; EBS <다문화 고부열전>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2015. 97~122.
バフチン, 桑野降 訳 (1979a). 『プロイト主義 生活の言葉と詩の言葉(バフチン著作集1)』.

新時代社.

Hall, S.(1972). *The ditermination of news photographs. Working papers in culture sutudies*, 3. /임영호 역(1996)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 한나래 참조)

Jacque Derrida, *Sovereignties in question: The poet of paul celan*, Fordham Univresity Press, 2005, 1~65.

<https://www.mbcplus.com/web/program/contentList.do?programInfoSeq=62&pageIndex=1&channelSeq=&state=Y> (2019.04.07.,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http://korea.kr/archive/speechView.do?newsId=132030823> (2019.04.07. 문재인 대통령, APEC 정상회의 발언문)

<http://tv.cctv.com/2018/03/25/VIDEEC5Eth4DYOmQBhNWUmKn180325.shtml>
(검색일자 2019.04.30. 外国人在中国 홈페이지)

<http://home.ebs.co.kr/gobu/replay/4/list?courseId=10005883&stepId=10006979>
(검색일자 2019.04.07. 고부열전 홈페이지)

http://www.ichannela.com/program/template/program_articleList.do?cateCode=0500&subCateCode=050006&ctype=02&menuIndex=3&seqIndex=0&searchDate=&realCateCode=05000604&pgm_id=WPG2110157D (검색일자 2019.04.07. <이제 만나러 갑니다> 다 시보기)

<file:///C:/Users/samsung/Downloads/01+2018+%EB%B6%81%ED%95%9C%EC%9D%B4%ED%83%88%EC%A3%BC%EB%AF%BC+%EC%A0%95%EC%B0%A9%EC%8B%A4%ED%83%9C%EC%A1%B0%EC%82%AC-%EC%9B%B9%EC%9A%A9.pdf>
(2019.04.07. <2018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통계청 홈페이지에도 같은 보고서가 업로드되어 있음.)

<https://www.mbcplus.com/web/program/contentList.do?programInfoSeq=104&pageIndex=1&channelSeq=&state=Y> (2019.04.07., <대한외국인>)

■ Abstract ■

Otherness in Inclusive Societies: On Narratives
of the Korean East Sea Rim Media for Others

SEOK-HEE KIM^{***}

The programs that feature others (or foreigners) in the media of the Korean East Sea Rim (South Korea, China, and Japan) commonly involve westerners as guests to view the portraits of the country newly drawn by their perspectives or to confirm the globalization of the society through their familiariz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culture of the country. Such situation is also found in South Korea. In the case of South Korea, however, programs that feature married immigrant women from South-East Asia or North Korean defectors living in South Korea, who are social minorities, are being broadcast (e.g. Fierce Fight in Multicultural Families and Now, I'm Going to Meet You). This aspect of South Korea is different from those of the other countries. Such programs that show the inclusiveness of the Korean society, however, treat the married immigrant women or North Korean defectors as others in their own ways. Although the recent Korean East Sea Rim societies emphasize policies on inclusion and coexistence, sincere inclusion or coexistence cannot be achieved as long as others are being treated differently.

Key words: Inclusion, otherness, media, married immigrant women, North Korea defectors living in South Korea, Korean East Sea Rim

■ 논문투고 : 2019년 5월 6일 논문심사 : 2019년 5월 7일~5월 28일 게재확정 : 2019년 5월 30일

^{***} KYUNGHEE UNIVERSITY, INSTITUTE OF GLOBAL AFFAIRS